

KIA 우승카드 '이범호' 꺼냈다

친정팀 한화 복귀 무산에 12억 베팅 전격 영입

김상현·최희섭 등과 클린업트리오 구축 할 듯

국가대표 3루수 이범호가 KIA 유니폼을 입는다. KIA 타이거즈가 27일 일본 소프트뱅크 소속의 이범호와 계약기간 1년에 계약금 8억원, 연봉 4억원 등 총 12억원에 계약하기로 합의했다. 최종계약은 이범호가 신변을 정리하고 일본에서 귀국하는 대로 이뤄질 예정이다.

이범호는 2009시즌이 끝나고 FA(자유계약) 자격을 얻어 소프트뱅크와 최대 3년간 5억원의 조건으로 일본 무대에 진출했다. 하지만 지난해 주전경쟁에서 밀리며 48경기에 나와 0.226의 타율과 4홈런 8타점을 기록하는 데 그쳤다.

그리고 올 시즌에도 소프트뱅크로부터 전력의 선수로 평가받으면서 이범호는 친정팀 한화를 우선으로 국내 복귀를 타진했다. 소

프트뱅크가 올 시즌 보장 연봉 1억엔에 대하여 한화가 일부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협상이 이뤄졌던 만큼 이번 KIA행은 '깜짝행보'다.

KIA는 최근 이범호와 한화의 협상이 결렬됐다는 소식을 듣고 영입을 위한 물밑 작업을 벌였다. 지난해 출전기회가 적었던 이범호는 주전보장을 통한 안정적인 활약과 기량 발전 가능성, 또 우승전력팀이라는 KIA의 실력에 결국 광주행을 선택했다.

이번 계약으로 지난 시즌 3번 타자의 부재 속에 '디펜딩 챔피언'에서 4강 탈락팀으로 추락했던 KIA는 이범호-최희섭-김상현으로 이어지는 국내 최강 클린업 트리오는 구성하게 됐다.

타자 용병까지 고려했던 KIA 입장에서 검증된 이범호를 통해 안정적으로 타선을 운용할 수 있게 돼 타력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이범호 연도별 성적

연도	타율	타수	안타	홈런	타점
2000	0.162	74	12	1	3
2001	0.196	138	27	3	16
2002	0.260	296	77	11	35
2003	0.238	323	77	11	38
2004	0.308	481	148	23	74
2005	0.273	444	121	26	68
2006	0.257	421	108	20	73
2007	0.246	418	103	21	63
2008	0.276	434	120	19	77
2009	0.284	436	124	25	79
2010	0.226	124	28	4	8

이다. 하지만 내야 포지션 문제가 복잡하게 얽히게 됐다.

KIA는 지난 시즌 2루 플라임을 소화한 안치용이 어깨 수술로 초반 복귀가 불투명한 가운데 '키스톤 롬비'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반면 이범호의 포지션은 3루는 포화상태다.

출판왕 김상현이 3루에 버티고 있고, 조병현 감독이 마무리플래시와 스프링플래시에서 타선의 희망으로 내세웠던 예비역 김주형도 주로 3루를 지켜왔다.

오른손 거포 김주형과 함께 나지완도 이범호의 등장으로 타석에서의 입지가 좁아지는 등 타이거즈 유망주의 성장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는 문제도 있다.

보상문제를 두고 팬들의 반발도 풀어야 할 숙제다.

이범호가 소프트뱅크 소속이지만 2009년 FA 신분으로 해외에 진출했던 만큼 KIA는 한화에 보상을 해줘야 한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지난 11일 이사회를 열고 FA 기간과 보상금 규정을 완화했지만 이범호의 경우에는 과거 규정을 소급 적용받는다.

KIA는 2009년 3억3000만원의 연봉을 받았던 이범호를 영입하기 위해서는 9억9000만원의 보상금과 보상선수 1명, 또는 14억8500만원의 보상금을 한화에 지급해야 한다.

선택은 한화의 몫이지만 선수층이 얇은 한화로서는 보상선수에 공을 들일 가능성이 높다. 보상선수를 놓고 KIA 팬들의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우즈 부활 예고 "수천개 볼 쳤다 예전 감각 회복"

"이 대회를 기다렸다. 다시 열기를 느낀다."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미국)가 27일 (한국시간)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파머스 인슈어런스 오픈이 열리는 샌디에이고 토리파인스 골프장에서 새해 첫 기자회견을 열고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다짐했다.

이혼 등 복잡한 사생활 문제로 부진을 겪은 우즈는 "작년에는 복잡한 일들이 많았고 그런 일들을 처리하느라 골프에 집중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특히 우즈는 작년의 부진을 퍼트 난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연필뉴스

KIA 미야자키 스프링캠프 관람 팬투어

내달 23~25일~ 선착순 모집

KIA타이거즈가 '미야자키 스프링캠프 관람단'을 모집한다.

KIA가 내달 23일부터 25일까지 2박3일간 일본 미야자키 스프링캠프를 방문, 선수단을 격려하고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팬투어를 실시한다. 비용은 성인 95만원, 아동(99년 3월 이후 출생자)은 86만4000원이다.

투어 참가자들은 미야자키 아이비 스

한기주 감잔류 재활훈련

들어간다. 하지만 재활조로 훈련을 해왔던 한기주는 일본 날씨가 쌀쌀함에 따라 몸에 남아 재활훈련과 치료를 병행하기로 했다.

한기주는 현재 단계별 투구 프로그램에 따라 30~40m 캐치볼을 소화하고 있으며, 2월말까지는 하프피칭 또는 그 전단계까지 몸상태를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쉽게 치료되지 않는 알레르기 비염, 축농증 고질적인 콧병 수술없이 다스린다

일반적으로 알레르기성 비염에 걸리면 연속적인 재채기와 맑은 콧물, 코막힘 등을 동반하게 되는데 이러한 알레르기성 비염은 조기 치료를 중요시한다. 제때 치료하지 않고 방치해 만성화될 경우 축농증, 비염(물혹), 중이염, 인두염, 기관지 천식 등 합병증을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알레르기성 비염 등 각종 코 관련 질환들은 학습에 치명적인 지장을 주고, 성장기 아동의 경우 성장에 있어 큰 걸림돌로 작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성적향상이나 성격형성에 악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성장발육에도 장애를 가져오기 때문에 효과적인 조기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근본적인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대개 만성화되거나 축농증으로 진전되어 평생 호흡관과 두통, 집중력 저하 등으로 고생하게 되는데, 특히 어린이나 수험생의 경우 기억력이나 집중력 저하로 인해 학습 장애가 발생하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인 치료를 필요로 한다.

인체면역력 강화로 알레르기성 고질병을 치료한다.

일반적으로 알레르기성 비염에 걸리면 연속적인 재채기와 맑은 콧물, 코막힘 등을 동반하게 되고 눈이나 인후두가 가렵거나 냄새를 잘 맡을 수 없게 된다. 또 눈물이 흐르거나 머리가 아파오고 피로해지는 등 다양한 증상을 보이게 되는데 코가 근질거리면서 맑은 콧물이 줄줄 흐르고 재채기를 발작적으로 하기 시작하면 이미 만성 알레르기 비염이 심해진 것이며 결국 축농증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중세가 심해지면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고 신경질적인 반응이 나타나며 집중력이나 기억력이 감소되어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놓이기도 한다. 또 위장병이나 만성 두통으로 발전하면서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알레르기성 비염은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유근피동 20여 가지로 만든 한약 고질적인 알레르기비염, 축농증에 좋은 효과 콧병치료의 시작은 먼저 환자의 몸을 건강하게 회복시키고 체질을 개선시켜 막힌 기운을 뚫는 데 중점을 두는데, 이환용 원장도 이런 과정을 통해 10여 년간 비염을 중점적으로 치료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한약을 만

들어 효과적으로 비염환자들을 치료해주고 있다.

축농증, 알레르기성 비염, 비후성 비염 등 고질적인 코질환에 좋은 효과를 보이는 것은 유근피이다. 이 유근피에 살구씨, 신이화, 수세미 등 면역력 증강과 호흡기가 튼튼해지는 20여 가지의 약재가 가미된 평강한의원 한약은 작은 환약으로 만들어져 어린이가 복용하기에도 수월하며, 고질적인 비염이나 축농증에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

평강한원에서 치료하는 알약은 주재료인 참느릅나무 껍질인 유근피는 예로부터 민간요법에서 콧병에 잘 듣는다고 하여 일명 '코나무'로 불리던 것으로, 콧병뿐 아니라 기침을 멈추게 하고 호흡기를 깨끗이 정화시켜주는 작용을 하며 염증이나 위장병 등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 평강한의원에서는 참느릅나무 뿌리 껍질인 유근피로 만든 한약을 환자들에게 처방한 결과 알레르기성 비염과 축농증을 비롯한 각종 코질환에 좋은 치료성적을 거두고 있다. 평강한원의 이환용 박사는 자연을 이용하면 어떤 병이든지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평강한의원 이환용 박사 (한의학 박사, 경희대 한의과대학 외래교수) 02-3481-1656 www.dr-lee.co.kr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회 제090204-중-473호

특허방수

하자없이 20년은 너끈히 가는 트라이슈머® 단열시트방수

2중단열방수, 절연방식시공, 내구성 탁월, 전천후 시공성

에너지를 절약하고 난방비를 절감

1. 여름철에는 전기료 절감 30~40%
2. 겨울철에는 난방비 절감 15~20%
3. 옥상정원을 조성했을 때와 같은 단열효과를 냅니다.

태양열차단 3~5°C, 냉방비 절감 30~40%
냉각차단 3~5°C, 난방비 절감 15~20%

본사 전속모델 밸런트 이영후

IPALG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 WWW.IPALG.COM 또는 이파엘지.kr

광주전남 대리점 (062) 511-0444
목포대리점 (061) 284-0485
여수대리점 (061) 683-0485
순천대리점 (061) 726-0482
광양대리점 (061) 795-0485